

공부하기 좋은 방 : 소쇄원 제월당

A Room Good for Studying : Soswewon Jaewoldang

글. 이원 Yi, Won | 시인

어느 공간에 가서, 생물처럼 느껴지는 건축물을 만날 때, 그곳에 머물고 싶다. 사람처럼 감정이 생겨나는 경험을 한다. 살아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어떤 때 그런가 하면, 시적이라고 느낄 때다. 시적이라는 느낌은 여러 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나의 경우는 통념을 뛰어넘을 때, 그 너머에서 보여주는 것이 원형을 품고 있을 때이다. 이럴 때 '건축', 이 한 단어의 정확성을 알게 된다. 정확성은 단단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즉 자연과 조우하는 방식에서도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적이라고 느낀 건축물에서는 고요해졌다. 긴장이 사라지는 고요함이어서 자연이 되었다. 자연은 편안함 이상의 것, 즉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머물고 싶어진다. 자연의 호흡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훼손된 나를 품어주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제일 먼저 보이는 법이다. 경제적 환원가치를 우선한 건축물은 유용성이 먼저 보인다. 경제논리보다는 자연과 조용하는 건축물을 좋아하는다. 비탈진 곳이면 주위를 깎아서 무조건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탈을 먼저 고려한 곳을 좋아한다. 한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이 내게도 여럿 있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 본 곳은 담양의 소쇄원(瀟灑園) 제월당(霽月堂)이다.

소쇄원, 자세한 소개가 사족이 될 만큼 참 많이 들은 곳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림(園林), 진즉 가보아야 할 곳을 얼마 전 처음 가보았다. 겨울의 평일, 늦은 오후여서 우리 일행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대나무길 사이로 들어서자 소쇄원이 드러났다. 가릴 것 없는 겨울이어서, 빛의 치장도 없는 흐린 오후여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풍각(光風閣) 뒤편으로 난 몇 개의 돌계단을 오른 곳에 제월당이 있었다. 대청마루와 방 한 칸. 높지도 낮지도



얇은 곳. 한 사람이 자족하기에 좋은 곳. 앞은 앞으로 뒤는 뒤로 옆은 옆으로 보이는 곳. 서늘하고 깊은 곳. 공부하기 좋은 방. 지식을, 세상을, 그리고 내가 나를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간결한 방. 제월당에 머물면 슬픔도 기쁨도 온전하게 느끼겠다. 현판의 뜻처럼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과 만나기 좋겠다.

제월당, 우암 송시열이 쓴 현판 아래 사각으로 열린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한 명이 들어서기 좋은 곳이었고 한 명이 사라지면 그 뒤로 겨울 나무가 보였다. 꽃이 피어도 좋겠다. 바람이 불어도 좋겠다. 물소리가 들려도 좋겠다. 문을 닫으면 너머로 어둠이 살짝 물러들어오기도 좋겠다. 나는 열린 문에서 찍힌 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부끄러움이 생겨나고 있는 얼굴이었다. 제월당 마루에는 오르지 않고 기둥을 양손으로 둥글게 감싸 보았다. 김인후가 지은 소쇄원사십팔영시(瀟灑園四十八詠詩)를 올려다보았다.

일행들이 내려간 뒤, 빈 제월당을 두 장 찍었다. 서울에 돌아와 사진을 열어보니 내가 찍은 제월당은 수평도 맞지 않는, 참 멋지지 않은 각이었다. 아름다운 석가래가 사라지고 글씨는 한결같이 흔들렸다. 감기가 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시선과 상태가 그러했을 것이다. 제월당은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요함이 필요할 때 문득 문득 이 사진들을 본다. 뒤로 열려 있으되 앞이 가늠되는 곳, 제월당에 가서 다시 머물러 보고 싶다. 그때는 마루에도 올라가 비 갠 뒤 나타나는 달과 마주할 수 있는 곳에 앉아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